

# 지역 봉사단체 대표도 낙하산?

# 전교조 소속 1만여 교사 시국선언

## 韓赤, 광주·전남지사 회장 선출 제동 親 정부 인사 기용 내정 의혹 물의

대한적십자사가 수십년 동안 지역에 일임해온 광주·전남지사 회장 선임에 돌연 제동을 걸고 나서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현 나무석 회장의 임기 만료(7월4일)에 맞춰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국현(내과위원장) 씨를 후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6일 최종 선임절차인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인준을 요청하려했으나, 지난 15일 밤 대한적십자사측이 갑자기 회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현 나무석 회장의 임기 만료(7월4일)에 맞춰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국현(내과위원장) 씨를 후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6일 최종 선임절차인

준해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같은 요구를 해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또 '적십자 총재에게 회장 선출 청문장 지역에서 단수 후보를 선출해 중앙에 인준 요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자 '조만간 정관을 바꾸겠다'고 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MB정부 들어 친 이명박계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가운데 순수 지역 봉사단체에 까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현 회장은 "수십년 동안 회장 선출에 지역의 의견을 심본 반영했던 서울 본부가 회장 선임에 편지를 걸고 나선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밖

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사 관계자는 "회장 선임과 관련해 서울 본부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다만, 그동안 광주전남 지사의 모금실적 등 활동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폭넓게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순수민간단체지만, 혈액 지원사업에서 국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으며, 국경감사 피감기관이다.

## 교과부 '엄정 조치' 경고... 마찰 예상

전교조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18일 발표하기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7일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 등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종합

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전교조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1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교사 1만명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 노동,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에는 자율형사립고 등 교육정책과 미디어법 개정 등과 같은 언론정책, 대규모 도심집회 금지조치 등을 비판하고,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임민욱 대변인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부측에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엄포에도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또 다시 '일체고사 거부사태' 때처럼 대거 징계사태가 우려된다.

##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 7.3% → 5%로

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일반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소득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나뉘었을 때 하위 1~3분위(연소득 2천384만원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통과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투자실명회 등을 거쳐서 이달 중에 유통화 재단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 2학기부터 채권 발행액을 재원으로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에 저리에 대출한다.

특히 올 2학기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 광주-서울 '교류 물꼬' 텅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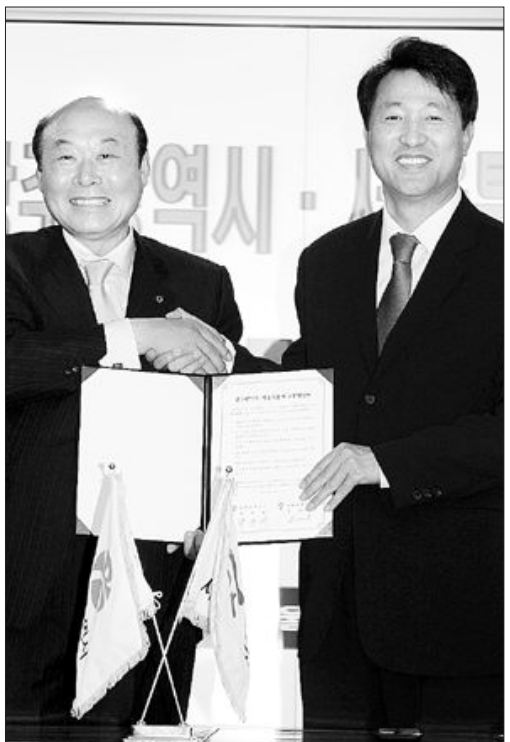
### 박시장, 오세훈 시장과 우호 협력 체결

광주와 서울시는 17일 문화, 농업,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교류협정서를 체결, 예술단체의 교환공연과 국제행사 및 전시회 상호 개최, 농·축산물 유통과 산업정보 상호 제공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8월 광주 지역 저소득층 초등학교생 20여명이 서울 풍납동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등 청소년 문화교류가 이뤄진다. 또 양 도시는 오는 10월에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열리는 서울 디자인올림픽과 세계광(光)엑스포 홍보와 참가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21~25일 서울시청 광장에 광주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주와 광역단체 행정을 선도하고 있고 특히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고 디자인비엔날레와 태양광(光)엑스포 홍보와 참가 등에서 교류·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무안~오사카 직항 파란불

### 박지사, 日 정관계 인사 만나 개설 협의



일본을 방문 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일본 정관계 인사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및 무안~오사카 간 항공노선 취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지사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 다니히다 다카시(谷津孝) 자민

당 중의원 등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에 비롯한 무안공항~오사카공항 간 노선개설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사는 박람회 주무부처 장관인 니카이 경제산업상에 일본이 여수박람회 참가를 신속히 결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니카이는 "여수박람회 참가는 아사다로(麻生太郎)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 간 협력을 약속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정부는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사는 다니히다 중의원로부터 무안공항~오사카공항 정기항로 개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 영화계 인사 225명도 'MB 규탄' 시국선언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25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16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을 다스리려는 권력의 오만한 자제가 없었지만, 우리도 방조와 무관심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책임을 나누며 이 땅의 주인으로서 반성의 기회를 주려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변도윤 여성부 장관 來光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18일 광주시청 및 전남대 등을 방문, 여성단체장과 미취업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설명회'를 갖는다.

변 장관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여성단체 대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여성정책을 설명한 뒤 전남대를 방문, 광주 지역 미취업 여대생 1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 빛의만평

- 김중두



갈수록 태산

**신안군 고시 제2009-39호**

**지도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고시**

1. 지도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심상가 활성화사업, 중앙전원도시개발구축사업, 해양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득세특별공제 제7조항(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시별 신안군형 건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아준다.

2009년 6월 18일

**신안군수**

가. 개발사업의 시행위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  
신안고대면(중소영주소, 영남면내 대영마을(영남면내영남면내) 개발로 신안군도읍지 일대가 좋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위치를 영남면내 영남면내(영남면내)로 한다.

나. 개발사업의 시행위치를 영남면내 영남면내(영남면내)로 한다(국 내 황해사상 대립수역, 휴양림관리지역)의 일부분이다. 개발의 행정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남면내(영남면내)로 한다(영남면내)로 한다.

다. 개발사업의 시행위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  
영남면내 영남면내(영남면내)로 한다.

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  
시행기간: 2009. 6. 18. ~ 2011.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에 조서와 소유권자의 권리의 명세  
토지 및 건물 명세: 영남면내 영남면내(영남면내)로 한다.

연락처: 영남면내 영남면내(영남면내)로 한다. (061-240-8461~8)

이의신청: 이의가 있으면 2009. 6. 24.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코세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태일이 엔지(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9년 6월 17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정북군산 2003-12-03)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거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요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관계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18일

**"갑" 코세미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대운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318호 307호 대표이사 전선숙

**"을" 주식회사 태일이엔지**  
군산시 옥구읍 삼평리 828-3 대표이사 박 현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대형주차장
- 중량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412-6234**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돈보다 비데**

행사기간 : 2009년 06월 15일 ~ 07월 15일

부모님 선물은 현금이 최고다!  
**단, 노비타 비데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속 있는 호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50  
270,000원 → **195,000**

모든 구매고객에게 1년치 필터(2ea) 증정

**노비타비데호남총판 비데프라자** ☎(062)515-1144  
※ 위 치: 동림 2지구 동림병원 앞